

농해수위 쌀 목표가 추가인상 불가 반발…감사 중단

국감 현장

국회는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법제사법위·기재위 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농해수위에서는 쌀 목표가격 추가인상 문제,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에 따른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 기재위에서는 통계청의 ‘고무줄 통계’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농해수위 = 지난 7일 농식품부 현안 보고에서 여야가 기존 80kg당 쌀 목표가격을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올리기로 한 정부의 안을 재검토해 21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으나 농식품부의 답이 없자 야당 의원들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을 질타하는 등 공방 끝에 감사가 도중에 중단되는 등 파행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의사전행 발언을 통해 “현재 쌀 가격이 30만6000원은 꽤야 정상이지만 정 어려우면 정부가 최소한 20만원 이상은 꽤야 한다고 말이라도 해야 장관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장관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담당자들과 목을 걸고서라도 붙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 장관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농정에 무관심한 ‘3무(無)’ 장관”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이 장관이 “법령에 규정된

법사위, 황찬현 감사원장 발탁 논란…기재위, 통계청 ‘고무줄 통계’ 질타

법위를 초과해 쌀값을 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사실상 쌀값 추가인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따른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 기재위에서는 통계청의 ‘고무줄 통계’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법사위 =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을 놓고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예비청문회’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법원이 계속 고위 판적으로 가는데 대해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박병계 의원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인사교류를 하는 게 삼권분립 정신에 적합하나,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융합 같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을 문제삼는 것은 월권이라고 맞섰다.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 수락이 적절하지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 통계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각종 통계가 일관된 기준 없이 작성되다 보니 현실과 거리가 있는 ‘고무줄 통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4.2%인데 통계청이 제시하는 고용률은 59.4%로 차이

가 크다”면서 “통계청이 국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통계청이 ‘1주일 내 1시간 이상’ 근무자까지 모두 취업자 숫자에 포함하다 보니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이 2배 이상 격차가 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이명박 정부가 ‘임박’에 맞는 통계가 발표되도록 의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新) 지니계수를 비롯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사회조사 등 각종 ‘불리한’ 통계들이 청와대의 의압으로 대선 때까지 공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쌀 목표가격 추가인상 문제를 둘러싼 공방 끝에 감사가 일시중단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회의실 앞에서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피켓을 들고 연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광주·전남 민간단체 사찰 의혹”

민주 장하나 의원…작년 고용청 통해 대안학교 교직원 개인정보 수집

국가정보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대안학교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장하나(비례) 의원은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제출한 ‘수·발신 공문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8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수사 협조’와 ‘업무협조’ 명목으로 공문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21일 ‘업무협조 의뢰’라는 제목으로 민간단체 4곳에 대해 단체 설립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설자 현황을 요청했고, 11월 1일에도 한 민간단체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의뢰했다.

국정원은 공문에서 고용보험 자료 제출 요구의 목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장 의원에 게 제출한 공문에서 해당 단체들의 이름을 지웠지만, 장 의원이 자체 파악한 결과 4곳 중 3곳은 지혜학교, 늦봄문익환학교, 곡성평화학교 등 광주·전남지역 대안학교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조화가 안 되는 곡성평화학교를 제외하

고, 지혜학교와 늦봄 문익환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월급, 고용보험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했다.

아울러 국정원과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총 79개의 문서를 주고받았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장 의원은 “국정원이 낡은 공안의 시각으로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찰을 해오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편승해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을 위해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어떤 목적으로 민간단체를 사찰했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지자체

5년여간 축제예산

6천억원 이상 썼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나 지자체의 행사 또는 축제성 경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서울 성동구 갑) 의원이 2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행사 및 축제성 관련 경비’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자체 행사 및 축제 예산으로 5조6000억원이 사용됐다. 각 지자체가 연평균 1조원 가까이 쓴 셈이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자치단체는 787억4500만원을, 전남지역은 5339억4900만원을 사용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재정·금융·세정분야 해박한 지식

국회내 ‘올라운드 플레이어’ 활약



국감 인물
민주당 이용섭 의원



리와 날카로운 비판으로 정부를 몰아붙이며 명불허전(名不虛傳)을 입증했다는 평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회 내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로 불린다. 건설교통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세청장 등을 지낸 덕분에 어느 상임위를 가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전공 분야는 기획재정위로, 18대 국회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활약을 했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배속됐다. 그러다가 지난 7월 국회 가계부채청문회에서 기재위로 사·보임(말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 두고 일시적으로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한 뒤 정기국회 시작 전에 아예 상임위를 옮겼다. 박근혜정부 첫 국감인 만큼 당에서 재정·금융·세제 등에 대한 그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 때문이었다.

예상대로 이 의원은 탄탄한 논

를 받았다. 우선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순국가채무가 급증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대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재정파탄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또 박근혜정부 첫 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사실을 통해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알렸으며, 대선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국세청의 전근대적 세무행정을 비판하고, OECD 국가 중 빈곤율 개선과가 가장 낮은 점을 들어 감세철폐와 복지확충을 통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무위, 국감스타는 박승춘?

5·18기념식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 막은 주역

‘대선개입 의혹’ 답변 무성의 일관 여야 멤버난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타 국회의원 못지않게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인물이 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바로 그다.

박 처장은 광주·전남지역민들에게 낯설지 않은 인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은 주역인 탓이다.

그러던 그가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의혹 때문에 야당의 집중 화해를 받고 있다.

지난 28일 보훈처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보훈처의 안보교육용 DVD 교재에 민주화 운동을 종북 세력의 활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해당 DVD 교재의 제작 비용을 출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 처장은 “협찬받았다”면서 ذو 구체적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박 처장은 시종 “검토하겠다”, “어떤 정보도 밝히기 어렵다”며 무성의하고 뻔뻔하게



답변해 비난을 자초했다.

군에서 주요보직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하던 박 처장은 국방부 정보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4년 북한 경비정 서해 NLL침범사건과 관련해 당시 북측과의 교신내용을 일부 언론에 공개해 물의를 빚어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05년 한나라당에 입당,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국면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2월 보훈처장에 임명됐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여단장을 지낸 안현태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 구십수에 오르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원 방향)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음식점
대 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월출동 공장
대지:광주시소유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금남로4가 빌딩
대 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쌍암동 나이트클럽
대 지:3238㎡ 건물:3090㎡
감정가격:89억7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굿모닝타운 분당 사무실)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이 이하

- 충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조합 9억6천
- 합평군 영업 필지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과 함께 있는 2층 주거지 504평 주거지에는 소형 APT나 다세대주택 대출4억 교환도 가능 10억5천
- 월릉·다세대주택지 북동상업지 64평 매도1억6천
- 계림동 구호빌건물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한의원·사육동에 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주택 9억5천
- 조선대학교앞 동명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시설 건물4동 대지321평 건물592평 고시원176실 전세5천만원에 월3500만원선 수입예상. 대출9억 임대수익생활에 적합. 소유권 이전은 법인이전 가능함 17억
- 공창부지 나주시 남평을 비행장으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억4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가격 12억가능. 투지에 적합 7억4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아파트. 중도에 슬로시티와 엘도리로 가는 길.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복지시설도 적합.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가격은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지지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강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판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동구 자산동 중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2821㎡ 감정가46억 최저가17억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 나주시 남내동 2중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1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130억 최저가17억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27억

토지매매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광산구 지평동 자연복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